

2찍, 5·18 북한개입 발언 논란

與野, 총선 앞두고 '말실수 주의보'

이재명, 인천 계양을 순회 중
“2찍 아니겠지” 발언에 “사과드려”

도태우, 5년 전 5·18 운동 부정
“정제되지 못한 발언으로 심려끼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인천 계양구 작전서운동 일대에서 양 손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시스

4·10 총선을 한달 앞두고 여야 정당들이 후보들 사이에서 무심코 나올 수 있는 말실수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백중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후보들의 말 한마디가 여론을 긍정적이게 하거나 들끓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9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순회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났는데, 한 고깃집에서 만난 손님들에게 인사하며 “설마 2찍, 2찍 아니겠지”라고 말했다.

2찍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했던 사람을 비하하면서 쓰는 말로, 곧바로 상대 정당의 비판 논평이 쏟아져 나왔다.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재명 대표는 극단적 갈라치기로 국민을 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새로운미래는 “상대 정당 지지자, 유권자에 일말의 존중도 없는 정치인의 이런 태도야말로 극단으로 치닫는 우리 정치를 병들게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도 이를 인식한 듯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며 “상대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모두 똑같은 주권자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치인의 말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유권자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거를 앞에 두고 정당들은 후

보들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후보들의 과거 발언까지 문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은 도태우 후보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5·18은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지만, 그것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굉장한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다”며 “특히 북한의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한 발언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도 후보는 해당 방송에서 “우리가 재조사를 해보면 당시 과연 북한의 광범위한 개입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진실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북한 개입에 대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충실히 점검해야 한다”며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5년 전 발언이 논란이 되자 도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도 후보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5년 전 정제되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해 12월19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 대구 중·남구 출마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시스

지 못한 개인적 발언들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을 계승한 흐름의 5·18민주화운동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결코 부정할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해명했다.

과거 대형 선거에서 말실수로 논란이 됐던 사례가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지난 2004년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 국회 처리 역풍으로 민주 정당 계열의 승리가 예상되던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60대,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 곧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집에서 쉬셔도 되고”라고 말해 투표 성향이 높은 노인층의 큰 반발을 일으켰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전두환씨가 정치 하나는 잘했다”고 말해 5·18 민주화 운동 유족 단체와 진보 정당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적도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생토론, 선거와 관계없이 총선 이후에도 계속될 것”

尹, 불법선거운동 논란에도
민생 챙기며 국정동력 확보



클러스터 조성에 투입되는 622조원은 민간기업 투자로 이뤄져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양육비 선지급제나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의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정책들을 소개하며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총선을 겨냥한 관련 선거’, ‘불법선거운동’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나섰지만, 대통령실은 “지금 대통령은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소야대의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추진은 야당의 반대에 힘들었고, 자연히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올해부터 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으로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겠다는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면서 국정 동력도 확보되는 모양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총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갈 계획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먼저, 야당의 ‘불법선거운동’ 주장에 대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이전에도 자립준비청년이라든가, 시장 상인이라든가, MZ 청년 경찰관이라든가 다양한 직군과 시민들의 그룹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현장에서 소통을 해 온 바가 있다”며 “지금 야당에서 여러 가지 최고위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라는 말을 엄청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두 달 동안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야기라 생각한다”며 “엄연한 사실 왜곡”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이어 “대부분 자발적인 민간 투자,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며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는 중앙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 그미만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메가

또, 민생토론회에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초청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어떤 구분을 두고서 만나고 있지 않다”며 “높은 사람 누구를 초청하느냐보다 국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반영해 즉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중점을 두고 민생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 된다”며 “지금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야당도 정부와 함께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보태주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을 바꾼 민생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지역별 현안들을 직접 챙기면서 지지율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다.

지난 8일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은 39%로, 직전 조사(지난달 27~29일)와 같았다.

갤럽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40%에 근접한 건 8개월 만이다. 부정 평가는 전주 조사 대비 1% 포인트(p) 오른 54%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정 기자 pathfinder@

이낙연, 광주 광산을 출마... “정권교체 희망 드리겠다”

필승 결의대회... 총선 청사진 밝혀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10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시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10일 제22대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 출마를 선언하고 “정권교체의 희망을 여러분께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필승 결의대회’를 열고 총선 청사진을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당초 불출마를 계획했으나, 당 안팎에서 호남 출마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광주 광산을 출마를 결심했다.

이 공동대표는 연설에서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보고 드린다. 저는 광주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은 결과, 광산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며 “놀랍도록 많은 시민들이 저에게 같은 의견을 주셨다. 저는 광산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세력 재건을 주민들께 호소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공동대표는 당을 이끄는 당 대표로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국민들

에게 선사하고 민주세력을 재건하겠다고 했다. 이 공동대표는 “법적, 도덕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나”라며 “방탄만 일삼는 방탄 전 문정당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나”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이 공동대표는 “정권교체를 하려면 새로운 대안세력이 필요하다. 저희 새

로운미래가 정권교체의 대안이 되겠다”면서 “저희만으로 부족하다면, 총선 이후에 대안세력을 새로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공동대표는 민주세력 재건에 대해 “저희 새로운미래가 김대중 정신을 지키는, 민주세력 재건을 위한 진짜 민주당의 씨앗이 되겠다”면서 “그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세력이 총선 이후까지, 지금처럼 갈 수 없다. 총선 이후에는 민주세력 재편이 시작될 것”이라며 “여러분이 아시는 민주당은 이미 죽었다. 저희 새로운미래가 민주세력 재편의 토대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친이재명계인 민형배 의원이 광주 광산을 공천을 받은 상태다. 그래서 이번 광주 광산은 비이재명계의 상징 이낙연 공동대표와 친이재명계인 민형배 의원의 대결로 상징성이 도드라질 전망이다.

/박태홍 기자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에 530명 지원

남성 331명, 여성 199명
40명 안팎 후보자 추천 예상

추천될 것으로 보인다. 정당투표 기호는 각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결정된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4·10 총선 비례대표 공천 신청 접수 결과 총 530명이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민의미래에 따르면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중 남성은 331명(62.5%), 여성 199명(37.5%) 등이다.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들을 평가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례대표 후보자등록 기간인 오는 22일 전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22대 국회 비례대표 의석수가 46석임을 감안할 때, 40명 안팎의 후보자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미래에 공천을 신청한 이들은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김은희 의원, 김형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인 전 위원장의 경우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영입인재 중에서는 ‘사격활제’ 진중오 전 대한체육회 이사, ‘탈북 공학도’ 박종권 전 현대제철 책임연구원,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위는 비공개 요청자를 제외한 신청자 명단을 추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syj@